한화투자증권

2026년 1월 26일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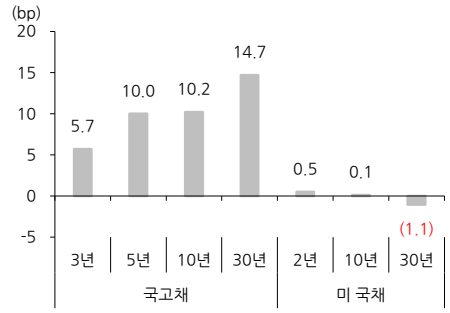
FI Weekly

일본이 문제다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1/23)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3.14%	3.05~3.18%	강보합
국고 5년	3.42%	3.35~3.50%	강보합
국고 10년	3.59%	3.50~3.63%	강보합
국고 10-3년	45.3bp	40.0~48.0bp	강보합
미국 10년	4.23%	4.15~4.28%	약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월까지는 일본 상황에 연동 불가피

한일 양국의 공통점은 1)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정부, 2)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3) 미국향 수출 비중 증가 등. 일본은 돈을 더 쓰겠다고 중의원을 해산했고, 지금의 한국 정부가 긴축 재정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움. 2026년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 위주로 성장이 준수할 전망.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나 첨단제품을 생산, 수출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나라도 한국과 일본 말고 없음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 주변에 큰 나라가 있고, 그 나라와 많은 환경이 비슷하다면 동조화는 불가피. 현재 한국 금리는 2025년 4분기부터, 경기 사이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중. 이러다 보니 금리도, 환율도 당분간은 일본에 연동될 공산이 큼

일본의 문제는 재정정책.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중의원 총선은 2월 8일이고, 통상 총선 이후 특별회기가 열리기까지는 1~2주가 소요. 예산안은 3월 마지막 주에 통과. 3월까지는 일본 재료가 계속해서 국내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이웃나라 사정은 우리 국고채 금리의 하단을 공고하게 하는 재료. 1분기 말까지 국고 10년 하단은 3.40%로 제시

크레딧 시장은 위축되지 않았다

연초 대비 채권형 펀드 설정 금액은 약 219조원으로 2.6% 증가. 거래일 기준 예년 평균 증가율인 약 2.0%를 상회. 1월 금통위 직후 소폭 유출된 자금도 곧바로 채워졌음

발행시장의 경우 금통위 날인 1월 15일 전후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발행환경의 정도가 조금 옅어진 것은 사실. 발행조건 확정일 기준 1월 15일까지 발행된 13종목은 민평금리 대비 평균 13.0bp 언더발행. 민평금리를 웃도는 레벨에서 발행이 확정된 종목은 2건(동일 기업)에 불과. 반면, 16일 이후 발행되었거나, 발행조건이 확정된 37종목 회사채는 평균 8.0bp 언더발행 되었거나 그렇게 될 예정. 여전히 준수한 환경임에는 이견이 있기 어려움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터져 나오는 국내외 여러 이슈들과 같이 생각해보면 크레딧 시장의 온기는 여전하다는 판단

I. 채권시장 전망

1. 채권: 1 분기는 일본의 시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문제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어느정도 수습되었다. 진중함과 신중함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발언의 맥락을 보면 딱히 틀린 말도 없다. '통상' 추경이 편성된다고 했는데 2000년 이후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적은 7번밖에 없고, 2020년대를 제외한 추경 규모는 연 평균 7.3조원이다. 적어도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과 우리 상황이 비슷한데, 일본은 앞서 나간다.

한일 양국은 비슷한 여러 상황을 공유 중

한일 양국의 공통점은 1)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정부, 2)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3) 미국향 수출 비중 증가 등이 있다. 일본은 돈을 더 쓰겠다고 중의원을 해산했고, 지금의 한국 정부가 긴축 재정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우리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6년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 위주로 성장이 준수할 전망이다.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나 첨단제품을 생산, 수출함과 동시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나라도 한국과 일본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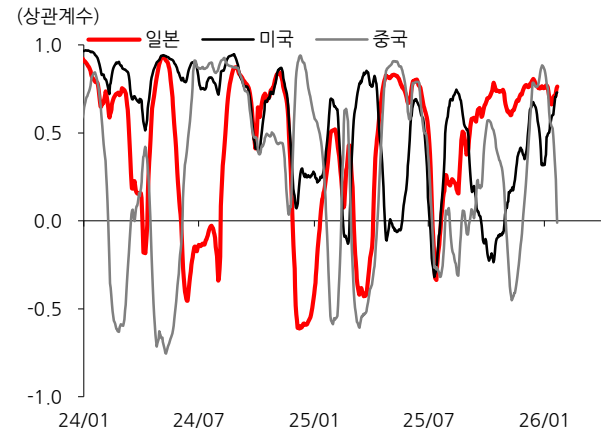
그렇다면 작은 나라인 우리가 일본에 동조화되는 것을 불가피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다. 주변에 큰 나라가 있고, 그 나라와 많은 환경이 비슷하다면 동조화는 불가피하다. 2020년대 초까지 우리 경기 사이클, 환율 흐름이 중국과 유사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현재 한국 금리는 2025년 4분기부터, 경기 사이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금리도, 환율도 당분간은 일본에 연동될 공산이 크다.

재정정책 불확실성은 최소 3월 말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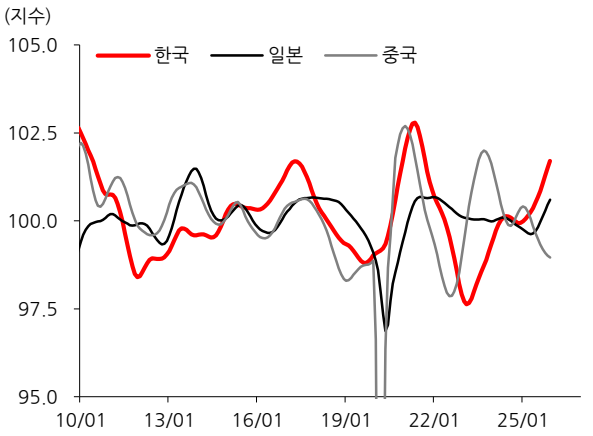
일본의 문제는 재정정책이다.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중의원 총선은 2월 8일이고, 통상 총선 이후 특별회기가 열리기까지는 1~2주가 소요된다. 예산안은 3월 마지막 주에 통과된다. 2015년 이후 예산안이 3월을 넘겨 통과된 적은 한번밖에 없다.

[그림1] 2025 년 말부터 한국 일본 금리 동조화 추세



주; 상관계수는 국가별 10년 국채금리의 60일 평균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경기도 마찬가지



주: 국가별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분기까지 일본 문제는 국내 시장의 부정적 재료

3월까지는 일본 재료가 계속해서 국내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웃나라 사정은 우리 국고채 금리의 하단을 공고하게 하는 재료다. 우리는 1분기 말까지 국고 10년 하단을 3.40%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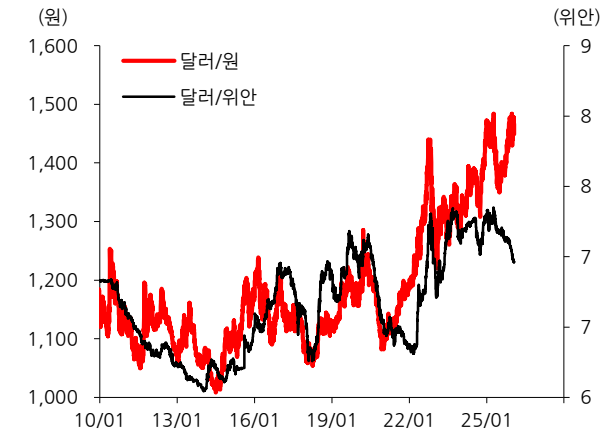
일본 금리 상승에 따른 WGBI 효과 반감도 생각할 필요

일본 투자자들의 국고채 매입 유인 감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보고서에서 WGBI의 핵심은 일본계 자금이고, 국고채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이들의 자금을 약 24.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국 30년 금리는 역전(한국-일본)되었고, 만기를 막론한 나머지 구간 금리 스프레드도 좁혀지는 중이다. 본인들 나라 채권 가격이 싸지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나라, 그것도 상대적으로 열위한 나라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명분은 크지 않다. 일본인 입장에서의 원화 헤지 프리미엄도 축소 추세에 있다.

당분간은 일본 상황에 주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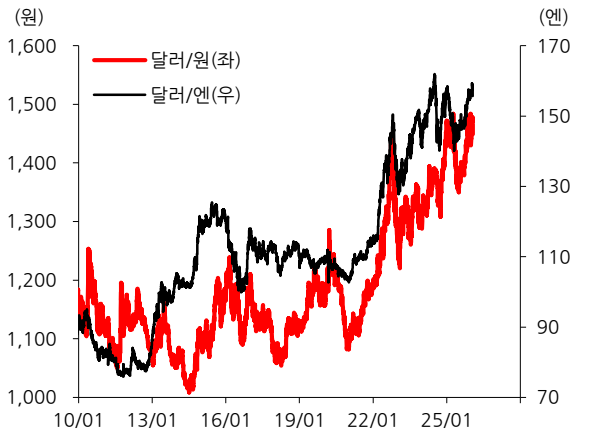
상승 추세에 있는 일본 금리와 엔화 환율은 그들의 통화, 재정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많은 환경을 공유하는 작은(그들보다) 이웃나라인 한국 채권시장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일본인들의 원화 자산 투자 매력도 반감되는 상황이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 문제다.

[그림3] 한중 환율 상관관계는 급격하게 약화되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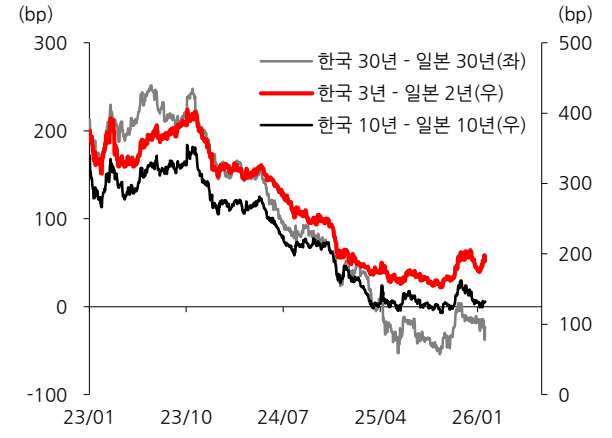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한일 동조화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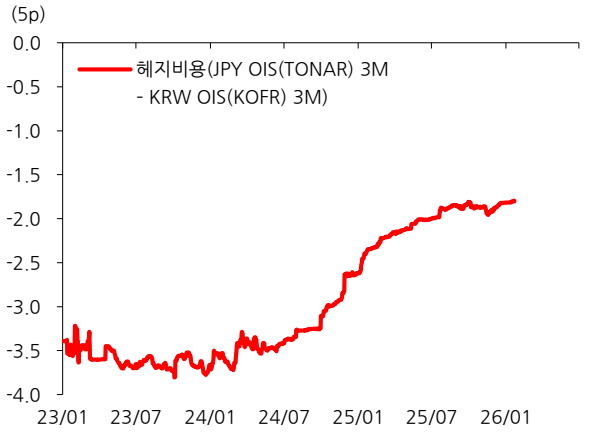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한일 국채금리 스프레드 축소 = 국고채 투자매력 감소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일본인들의 헤지 프리미엄 역시 축소 중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크레딧: 시장은 위축되지 않았다

양호한 크레딧 시장환경 지속

국내외 채권시장에 여러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시장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수요도, 발행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인 50.0bp를 밑돌고, 채권시장 투자심리 약화 정도를 생각해보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수요도, 공급도 특이사항 부재

우리는 지난 보고서들을 통해 1) 연말연초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발행 금리 조건이 이전보다 낮기 때문에 roll-over 성격 발행 물량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고, 2) 캐리 매력을 감안했을 때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채권형 펀드 설정 자금 증가율, 예년보다 높고

실제 수요 측면부터 살펴보면, 연초 대비 채권형 펀드 설정 금액은 약 219조원으로 2.6% 증가했다. 거래일 기준 예년 평균 증가율인 약 2.0%를 상회한다. 1월 금통위 직후 소폭 유출된 자금은 곧바로 채워졌다. 최근 증가세가 조금 완만해 졌다고 하나, 수요가 위축되었다고 보기에는 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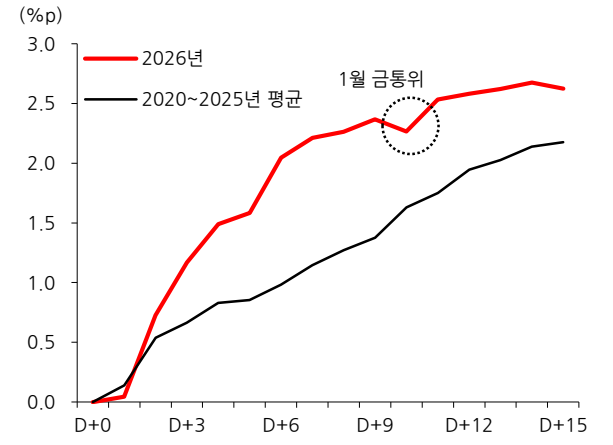
발행시장 흥행강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준수한 수준

발행시장도 마찬가지다. 금통위 날인 1월 15일 전후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발행 환경의 정도가 조금 옅어진 것은 맞다. 발행조건 확정일 기준 1월 15일까지 발행된 13종목은 민평금리 대비 평균 13.0bp 언더발행 되었다. 민평금리를 웃도는 레벨에서 발행이 확정된 종목은 2건(동일 기업)에 불과하다. 반면, 16일 이후 발행되었거나, 발행조건이 확정된 37종목 회사채는 평균 8.0bp 언더발행 되었거나 그렇게 될 예정이다. 여전히 준수한 환경임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크레딧 시장은 위축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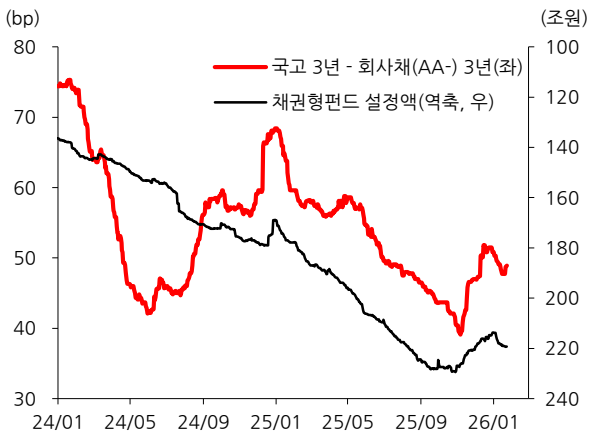
채권시장 자금 유입 강도가 완만해지고, 우호적인 발행여건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터져 나오는 국내외 여러 이슈들과 같이 생각해보면 크레딧 시장의 온기는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긍정적인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그림7] 연초대비 채권형 펀드 설정액 증감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크레딧 스프레드 및 채권형펀드 설정액 추이



주: 회사채는 무보증 회사채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1월 금통위 전후 회사채 발행내역

종목명	발행일 (상장예정일)	발행조건 확정일	만기	표면금리 (%)	신용등급	발행액 (억원)	언더/오버발행 (bp)
한화투자증권30-1	2026-01-15	2026-01-09	2년	3.262	AA-	800	(39)
한화투자증권30-2	2026-01-15	2026-01-09	3년	3.490	AA-	1,750	(40)
한화투자증권30-3	2026-01-15	2026-01-09	5년	3.818	AA-	450	(42)
포스코퓨처엠23-1	2026-01-15	2026-01-09	3년	3.574	AA-	3,900	18
포스코퓨처엠23-2(녹)	2026-01-15	2026-01-09	5년	3.884	AA-	600	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0-1	2026-01-15	2026-01-09	2년	3.100	AA	1,200	(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0-2	2026-01-15	2026-01-09	3년	3.315	AA	2,800	(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0-3(사)	2026-01-15	2026-01-09	5년	3.475	AA	1,000	(21)
롯데웰푸드74-1	2026-01-15	2026-01-09	3년	3.322	AA	2,100	(3)
롯데웰푸드74-2	2026-01-15	2026-01-09	5년	3.504	AA	400	(7)
이마트29-1	2026-01-21	2026-01-15	2년	3.335	AA-	500	(11)
이마트29-2	2026-01-21	2026-01-15	3년	3.602	AA-	2,500	(9)
이마트29-3	2026-01-21	2026-01-15	5년	3.955	AA-	1,000	(15)
한진126-1	2026-01-22	2026-01-16	2년	3.902	BBB+	380	(27)
한진126-2	2026-01-22	2026-01-16	3년	4.135	BBB+	420	(64)
현대제철142-1	2026-01-22	2026-01-16	2년	3.270	AA	1,000	1
현대제철142-2	2026-01-22	2026-01-16	3년	3.479	AA	3,000	0
현대제철142-3	2026-01-22	2026-01-16	5년	3.690	AA	1,000	(3)
신세계145-1	2026-01-28	2026-01-21	2년		AA	700	(1)
신세계145-2	2026-01-28	2026-01-21	3년		AA	1,500	(1)
KB증권49-1	2026-01-28	2026-01-21	2년		AA+	600	(5)
KB증권49-2	2026-01-28	2026-01-21	3년		AA+	5,300	(1)
KB증권49-3	2026-01-28	2026-01-21	5년		AA+	2,100	(3)
키움증권17-1	2026-01-28	2026-01-21	3년		AA-	3,200	(5)
키움증권17-2	2026-01-28	2026-01-21	5년		AA-	800	(9)
한국항공우주30-1	2026-01-28	2026-01-21	3년		AA-	4,200	(5)
한국항공우주30-2	2026-01-28	2026-01-21	5년		AA-	800	(18)
CJ제일제당33-1	2026-01-29	2026-01-22	3년		AA	3,700	(1)
CJ제일제당33-2	2026-01-29	2026-01-22	5년		AA	1,200	0
LG유플러스120-1	2026-01-29	2026-01-22	3년		AA	2,600	0
LG유플러스120-2	2026-01-29	2026-01-22	5년		AA	1,300	(1)
LG유플러스120-3	2026-01-29	2026-01-22	10년		AA	1,100	(30)
호텔롯데80-1	2026-01-29	2026-01-22	2년		AA-	1,350	(1)
호텔롯데80-2	2026-01-29	2026-01-22	3년		AA-	650	0
SK가스43-1	2026-01-30	2026-01-23	2년		AA-	500	0
SK가스43-2	2026-01-30	2026-01-23	3년		AA-	2,700	4
SK가스43-3	2026-01-30	2026-01-23	5년		AA-	500	1
대상149-1	2026-01-30	2026-01-23	3년		AA-	2,100	(3)
대상149-2	2026-01-30	2026-01-23	5년		AA-	850	(3)
신세계푸드6-1	2026-01-30	2026-01-23	2년		A+	500	(4)
신세계푸드6-2	2026-01-30	2026-01-23	3년		A+	400	(17)
코리아에너지터미널6	2026-01-30	2026-01-23	3년		AA-	1,650	(6)
팜한농23-1	2026-01-30	2026-01-23	2년		A	300	(24)
팜한농23-2	2026-01-30	2026-01-23	3년		A	700	(42)
현대건설311-1	2026-01-30	2026-01-23	2년		AA-	1,400	(5)
현대건설311-2	2026-01-30	2026-01-23	3년		AA-	1,600	(5)
현대건설311-3	2026-01-30	2026-01-23	5년		AA-	300	(20)
현대트랜시스50-1	2026-01-30	2026-01-23	2년		AA-	800	0
현대트랜시스50-2	2026-01-30	2026-01-23	3년		AA-	2,600	0
현대트랜시스50-3	2026-01-30	2026-01-23	5년		AA-	500	(9)

자료: DART,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전략: 올라간 곳에서 머무를 금리

국고 3년: 3.05~3.18%
국고 10년: 3.50~3.63%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3.05~3.18%, 3.50~3.63%를 제시한다. 앞서 설명했듯 당분간 국내 채권시장은 일본 시장과의 동조화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고 3년, 10년 금리가 3.00%, 3.40%을 유의미하게 하회하기는 어렵다. 이번주 주요 이슈로는 연준 FOMC가 있다. 미국 통화정책 역시 시장의 강세 재료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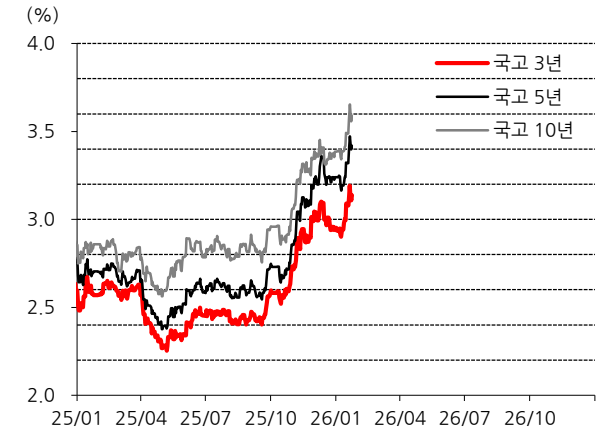
1월 FOMC, 기준금리 동결 + 동결 기조 장기화 시사 예상

29일 예정된 FOMC에서의 기준금리(3.75%) 동결 확률은 100%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신중한 스탠스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상승하지 않지만 둔화 되지도 않는 물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고용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연준은 동결 기조의 장기화를 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에 대해서는 소폭 긍정적, 물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뀐 연준 인사들의 견해도 이를 지지한다.

미국 10년 4.30% 상회 시 매수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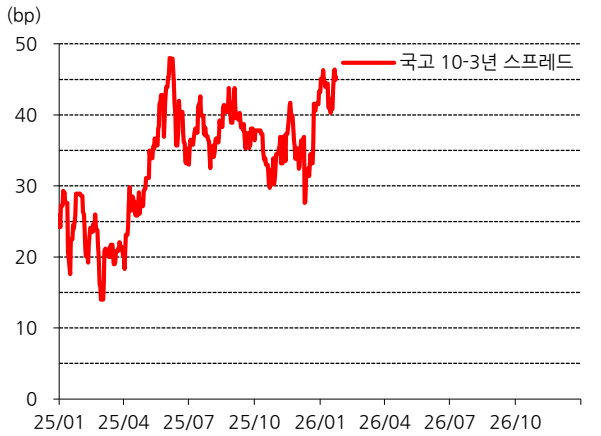
이번 미국 통화정책회의는 한국과 미국 금리 모두의 하방 경직성 강화 재료로 판단하며, 월말까지 미국 10년 금리는 4.13~4.30% 부근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4.30%을 상회할 때는 매수 관점 접근을 권고한다.

[그림9]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국고 10-3 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1/23)		
국고 3 년	2.95%(+18.4bp)	2.95%(+18.4bp)	3.14%(+5.7bp)	3.05~3.18%	강보합
국고 5 년	3.24%(+18.0bp)	3.24%(+18.0bp)	3.42%(+10.0bp)	3.35~3.50%	강보합
국고 10 년	3.39%(+20.5bp)	3.39%(+20.5bp)	3.59%(+10.2bp)	3.50~3.63%	강보합
국고 10-3 년	43.2bp(+2.1p)	43.2bp(+2.1p)	45.3bp(+4.5bp)	40.0~48.0bp	강보합
미국 10 년	4.17%(+5.8bp)	4.17%(+5.8bp)	4.23%(+0.1bp)	4.15~4.28%	약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통화정책 Tracker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21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 아직까지는 달러 수요 약화보다 헤지 수요가 많은 상황 - 영란은행은 연준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위협이 없음
1/21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대신)	-	- 소비세 인하는 국채 발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일본은행 등 관계당국과 협력, 시장 안정 위해 노력할 것 -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 없음 - 앞으로의 국채 입찰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시장이 소비세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고 있음. 시장 참여자들의 이성적인 판단 필요 - 이본 재정적자는 G7 중 가장 작은 수준 - 현재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상황이 탄광 속 카나리아는 아님
1/2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 어떤 모델로 평가해도 지금 환율 수준은 높은 수준 - 시간을 가지고, 특히 기대가 변하면 조정될 것. 조정될 때를 대비해야 함 - 일본에 비하면 원화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 - 당국은 한두 달이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1/23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	- 장기금리 상승 속도는 과도하게 빠른 편. 정부와 소통, 필요 시 역할 수행할 것 -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개시장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채권수익률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 발생 시 개입 예정 -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경제 및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결정 - 엔화 약세가 당분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4월은 많은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는 시기지만 반드시 그것이 금리 인상 시기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Ⅱ. 채권시장 동향

선진국 금리: 대부분 상승

지난주 선진국 국채금리는 배부분 상승했다. 일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한 한 주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2월 8일 총선이 확정되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감세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모 중이다. 이에,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23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기준금리(0.75%)가 동결되었지만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 시장에 매파적으로 해석되었다.

미국 금리: Bear Steepening

미국 10년 금리는 4.23%로 전주 대비 +0.1bp 상승했다. 만기별 전 구간 보합세를 보였다. 새로운 이슈는 부재했던 가운데, 일본 금리 상승과 그린란드 등 지정학적 이슈가 주중 금리를 끌어올렸으나, 상승 추세로의 발전은 제한되었다.

신흥국 금리: 대부분 하락

신흥국 채권시장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강세 마감했다. 튀르키예는 Fitch의 신용등급 전망 조정(BB- Stable → Positive), 예상보다 작은 기준금리 인하 폭(37.00%, -100bp(시장 예상: -150bp)) 등 영향에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시장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 약세가 지속되며 약세를 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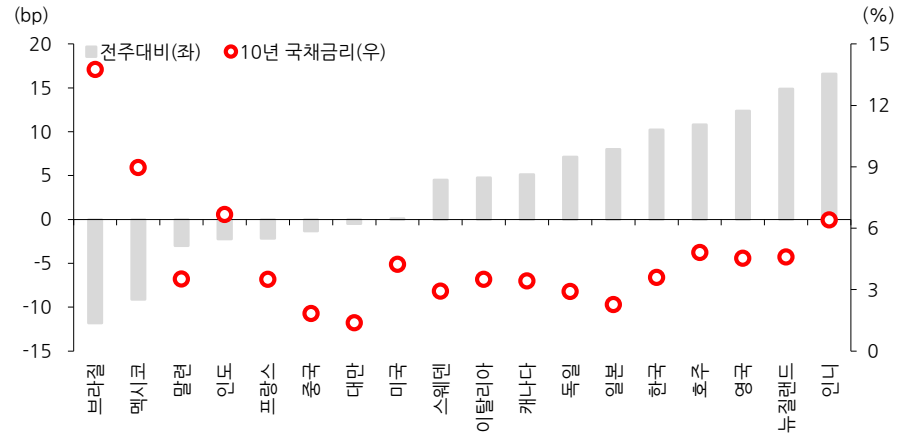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전 구간 상승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 전 구간 상승 마감했다. 주중 정부의 '추경' 발언은 수습되었지만 일본 관련 우려와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가 시장 약세 재료로 작용했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5.7bp, 10.2bp 상승한 3.14%, 3.59%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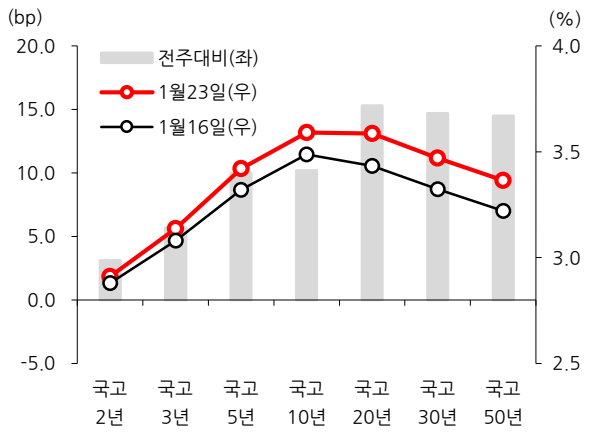
민평 기준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4.9bp, 8.0bp 상승한 3.13%, 3.58%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부각된 모습이다. 다만, 절대금리 매력으로 회사채 수요는 유지되었다. 국고 3년 대비 동일만기 회사채 AA- 스프레드는 48.9bp로 전주 대비 1.0bp 확대되었다.

[그림1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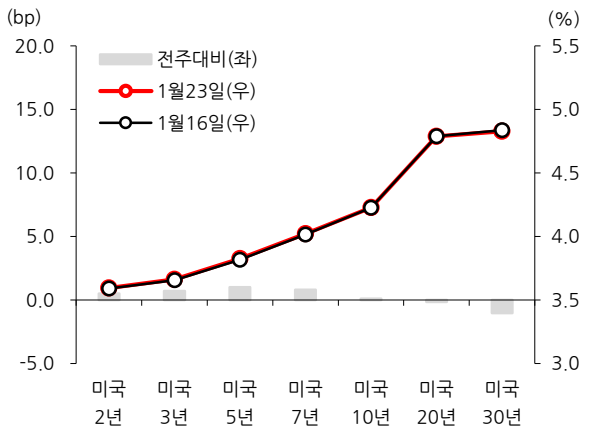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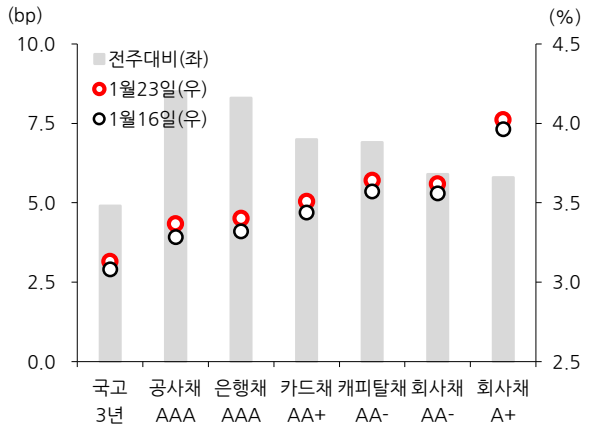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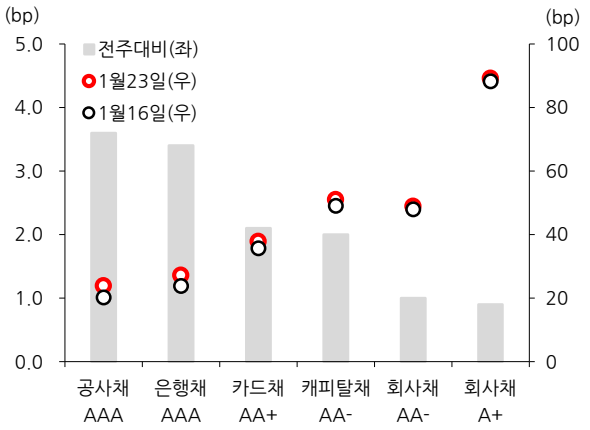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					
	-					
	-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변경등급	전망	직전등급	전망	평가사
	-					
	-					
	-					

자료: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Ⅲ.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6	27	28	29	30
호주 휴장(호주의 날) **(미국)** 11 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 (전월: -0.21, 전년: 0.00)	**(한국)** 1 월 제조업 BSI (전월: 94.4, 전년: 89.0) **(미국)** 2 년 국채 입찰 (3.50%, 간접: 53.2%, 응찰률: 2.54 배) 1 월 달라스 연은 재조업 활동지수 (전월: -10.9, 전년: 14.1) 11 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4%, 전년비: 1.7%) 11 월 Case Shiller 20 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0.3%, 전년비: 1.3%)	**(미국)** 5 년 국채 입찰 (3.75%, 간접: 59.5%, 응찰률: 2.35 배) 1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 -7.0, 전년: -7.0) 1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예상: 90.1, 전년: 89.1, 전월: 105.3)	미국 연준 FOMC 브라질 BCB COPOM **(미국)** 11 월 건축허가 (전월비: -0.3%, 전년비: -1.2%) 11 월 수출입 (수출 전월비: 2.6%, 전년비: 12.1%) (수입 전월비: -3.2%, 전년비: -3.6%) **(유로존)** 1 월 소비자신뢰지수 (전월: -13.1, 전년: -12.3)	**(한국)** 12 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0.6%, 전년비: 0.1%) 12 월 소매판매 (전월비: 0.8%, 전년비: 1.5%) 1 월 수출입(2/1) (수출 전월비: 14.4%, 전년비: 13.3%) (수입 전월비: 11.9%, 전년비: 4.6%) **(미국)** 7 년 국채 입찰 (3.93%, 간접: 59.0%, 응찰률: 2.51 배) 11 월 공장수주 (전월비: -1.3%, 전년비: 2.2%) 11 월 내구재 주문 (전월비: -2.2%, 전년비: 4.7%) 12 월 PPI (예상(m): 0.2%, 전월비: 0.2%, 전년비: 3.0%) **(유로존)** 4 분기 GDP(속보) (전기비: 0.3%, 전년비: 1.4%) 12 월 실업률 (전월: 6.3%, 전년: 6.3%) **(중국)** 1 월 제조업 PMI(1/31) (전월: 50.1, 전년: 49.1)
국고 5 년 입찰 2 조 5,000 억원 통안 91 일 입찰 6,000 억원 은행 발행 500 억원 / 만기 2,700 억원 카드 만기 200 억원 회사 발행 1,070 억원 / 만기 4,711 억원	국고 20 년 입찰 5,000 억원 통안 만기 1 조 500 억원 은행 만기 4,000 억원 카드 만기 100 억원 회사 발행 1 조 9,200 억원 / 만기 8,450 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3,500 억원 카드 만기 2,000 억원 회사 발행 1 조 1,900 억원 / 만기 5,500 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5,000 억원 카드 회사 만기 5,850 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2,800 억원 카드 만기 100 억원 회사 만기 1 조 3,725 억원
2/2	3	4	5	6
(유로존) 1 월 제조업 PMI (전월: 48.8, 전년: 46.6)	호주 RBA Reserve Bank Board Meeting 1 월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강경, X) 연설 **(한국)** 1 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3%, 전년비: 2.3%) (Core 전월비: 0.2%, 전년비: 2.0%) **(미국)** 1 월 ISM 제조업지수 (전월: 47.9, 전년: 50.9)	**(유로존)** 12 월 PPI (전월비: 0.5%, 전년비: -1.5%)	영국 BOE Monetary Policy Committee 유로존 ECB Governing Council Meeting **(미국)** 1 월 ISM 서비스업지수 (전월: 54.4, 전년: 52.8) **(유로존)** 12 월 소매판매 (전월비: 0.2%, 전년비: 2.3%)	Bullock RBA 총재 의회 증언 **(한국)** 12 월 경상수지 (전월: +122.4 억$, 전년: +29.4 억$) **(미국)** 1 월 비농업 고용지수 (전월: 5 만명, 전년: 11.1 만명) 1 월 실업률 (예상: 4.4%, 전월: 4.4%, 전년: 4.0%) 2 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잠정) (전월: 54.0, 전년: 64.7)
국고 통안 은행 카드 만기 1,400 억원 회사 만기 5,580 억원	국고 통안 만기 9,200 억원 은행 만기 7,300 억원 카드 만기 400 억원 회사 만기 2,050 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4,500 억원 카드 만기 1,100 억원 회사 만기 1,536 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5,100 억원 카드 만기 100 억원 회사 만기 535 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5,000 억원 카드 만기 1,800 억원 회사 만기 6,710 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